

의약분업, 어디로 가고 있나?

의약분업을 약 3개월 남기고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4일부터 의사집단휴업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집단휴진 계속 여부에 대한 논란 끝에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에 참가한 중앙위원 29명 가운데 18명이 3일간의 휴진을 끝내고 조직정비 뒤 투쟁 방안에 찬성해 7일부터 정상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재정 의쟁투 위원장은 약사들의 임의조제 금지방안 강화,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문제 논의를 위한 중앙의약분업협력기구 구성, 진료비 실사권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 일임 등을 뼈대로 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복지부와 의쟁투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임의조제 감시단 운영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분류 △7월1일부터 드링크·비타민 등의 슈퍼 판매 △대체조제 최소화 △약화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 제정 △의약분업 시범사업 보류 등에 합의했다.

또 의료보험과 관련해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의보공단의 재심사 불인정 △수가계약 중재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요양기관 처벌 시 청문 절차 명문화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체불된 의료보호 진료비 해소와 진료비 개산불제도 시행에 적극 노력하고, 가정의학과 등 5개 전문과목의 종합병원 1차 진료 불인정 등에 대해서

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동조휴진에 들어간 전국 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중환자 수술과 응급실 당직근무자만 남기고 지역별·병원별로 의약분업 토론회 등을 열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종합병원과 보건소는 이날 평소보다 10~20% 더 많은 환자가 몰려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고,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2배 이상 길어지는 등 곳곳에서 진료차질이 빚어졌다.

의약분업의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항생제 내성은 세계적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더 이상 방치하면 내성이 큰 슈퍼 박테리아 등 항생제로도 듣지 않는 병원균이 발생, 국민건강의 장래가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에 대한 개념은 이미 정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해외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등의 현지 취재를 통해 선진국의 의약분업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

특히 독일의 한 약사는 인터뷰에서 “오랜 의약분업의 역사를 통해 의사와 약사의 고유영역이 확연하게 나뉘어 있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느냐”라며 “다만 독일에선 옛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느라 취약해진 의료보험 재정을 보강할 목적으로 서너 차례 수가를 내리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주요 쟁점이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전혀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의사의 처방전에 응하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약을 상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재고 부담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약품 주문을 컴퓨터 전산망에 연결된 유통시스템에 의존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동안 의약분업을 정착시켜온 선진국과의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의 의약분업도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실시하기로 한 만큼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보완책 마련 등으로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도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나서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의약분업과 신약개발 붐 등으로 의료시장이 커지자 의료인들의 벤처기업 창업이 잇따르고 있는 것.

연세대 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의 교수 5명은 최근 제네피아라는 의료 벤처기업을 교내에 창업했다. 제네피아는 실험에 쓰이는 시약과 DNA 분리 키트 등 의약, 생명공학 관련시약 및 진단·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당뇨병 진단 및 치료기술 연구와 실험시약의 국산화 등도 예정돼 있다

아주대 흉부외과 교수였던 노환규 씨도 최근 '건강샘'으로 유명한 인터넷기업 닥터헬프 사장으로 변신했다. 이 회사는 제약사 및 생명보험사의 건강사이트 개발자문과 의학정보 관련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있다.

손현준 충북대 의학연구정보센터 소장은 지난 1월 의과대학 교수 및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 80명을 주주로 자본금 8억원 규모의 메드벤이라는 벤처기업을 설립했다 이 회사의 개발품목은 '처방전달 시스



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병원과 약국을 왕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것이라는 데 착안했다

이밖에 한양대 류머티스병원 진단면역과 김신규 교수가 '임뮤노링크'를,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정동하 과장과 20여명의 의사들이 공동출자해 의학정보 제공회사인 '엠디하우스'를 최근 창업했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의료관련 벤처 창업은 지난해 한달 평균 240여개에 이르렀고, 올해는 30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벤처 창업은 기술적인 면에서의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동네의원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밀조사를 벌여 의보수가 현실화에 반영하는 한편 실거래상환제 실시에 따른 병의원들의 경영수지 등에 대한 정확한 실사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의경 기자(은혜기획)